

전주시 모심택시, 운행지역 확대

〈농촌형 마을택시〉

재전마을·동산마을·쌍철마을 등 3개동 7개 마을 추가... 19개 마을로 확대 운행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전주시 농촌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마을택시가 11월부터 확대 운행된다.

전주시는 지난 4월부터 4개동 12개 마을에서 운행 중인 모심택시가 11월 1일부터는 3개동 7개 마을을 추가한 19개 마을로 확대 운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심택시는 '농촌마을 어르신들을 모시러 간다'는 의미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보장과 이동편의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교통서비스이다.

모심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거

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지역으로, 해당 마을회관에서 재래시장 등 마을별로 정한 재래시장 등 주요거점까지 운행된다.

추가 운행 지역은 △재전마을·왜망실마을·관암마을·원산정마을 등 우아2동 4개 마을 △봉암마을·동산마을 등 호성동 2개 마을 △조촌동 쌍철마을 등 3개동 7개 마을로, 1일 총 25회 운행된다.

기존 조촌동 3개 마을(청북·방죽안·신유강마을)과 우아1동 장재마을, 우아2동 3개 마을(공덕·삼천·가소마을), 삼천3동 5개 마을(석산·우

목·비아·만수동·신덕마을)을 포함하면 총 5개동 19개 마을 2,577명이 모심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요금은 택시 1대당 2,000원이며, 택시 한 대에 4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만큼 4명이 1대의 택시에 탑승할 경우 1인당 500원이면 이용 가능하다.

마을별 운행횟수와 운행 시간, 장소 등은 사전에 해당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됐다. 우아2동 재전, 왜망실, 관암 마을의 경우 각 마을회관에서 남부시장까지, 원산정마을은 모래내시장까지, 호성동의 경우 동산마을은 모래내시장, 봉암마을은 중앙시장까지, 조촌동 쌍철마을은 동

산동 우체국까지 각각 운행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6개월간 1일 35회씩 총 4,130회 운행했다. 1일 평균 이용객은 45명으로 총 5,310명이 모심택시를 탔다.

모심택시를 이용하면서 농촌 교통소외지역 어르신들은 장보기와 병원 진료, 복지관 방문 등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발굴사업이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인 '공공형 택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국비 5,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국비 1억으로 추가 예산 확보하는 등 모심택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호남고속도로 화전2교 구간 6,8일 운행 제한... 공사 완료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31일 전주시 화전동에 위치한 호남고속도로 전주-삼례 구간 170.5km 지점 화전2교 개량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통행해 온 가도에서 본선으로의 교통전환을 위해 6일 천안방향, 8일 순천방향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화전2교를 전면개량해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해 시행됐다.

운행이 제한되는 시간대는 방향별로 운행제한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1, 2차로를 순차로 제한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작업구간을 지나가시는 경우 안전을 위해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섬매매집결지인 선미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전주시 노송동 동네잔치가 열렸다.

전주 선미촌 변화가능성 기대감 'UP'

시, 시티가든서 두 번째 노송동 주민화합·소통잔치 주민 주도로 열어

섬매매집결지인 선미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전주시 노송동 동네잔치가 열렸다.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와 서노송동 주민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노송동 가을 동네잔치가 지난 31일 선미촌 및 인근 노송동에 거주하는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미촌 내 시티가든(기억의 공간)에서 열렸다.

시와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는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한 선미촌의 변화

에 발맞춰 선미촌과 인근 주민들의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고, 선미촌을 원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동네주민들을 위한 잔치를 기획하게 됐다.

본에 이어 두 번째인 가을동네잔치는 서노송동주민협의회에서 직접 행사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였으며, 행사의 진행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행사에 참여한 하모니카 연주, 초대가수의 공연은 완성발예술봉사단원이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동참하게 되었다.

그간 노송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섬매매집결지 주변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했다. 가족과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도심 속의 이방인으로 살아온 것.

이에,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는 마을의 실질적인 주인이면서도 주민공이 되지 못한 채 슬픈 세월을 보내온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네잔치를 열고 있다. /김민근 기자

익산 돈사 화재 280여 마리 폐사

익산시 왕궁면의 A(65)씨의 돈사에서 31일 오전 4시1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돈사 8개동 중 4개동 일부가 불에 타고 돼지 280여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4,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현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 전·현직 도의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된 전·현직 도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호 전북도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추가 기소된 강영수 전 전북도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자금수수를 위해 부정 집행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법원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차례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운영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 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 예산 등을 편성, 사업을 수주해 준 뒤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 후 검찰추가조사에서 강 전 의원이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받아 이 중 1,000만원을 정진세 전 전북도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아 이번엔 추가 기소됐다.

한편, 정 의원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브로커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정에서 증인을 신청해 구형이 연기됐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립예술단 연습전용관 개관

전주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인 덕진예술회관에 전주시립예술단원들의 연습실과 소규모 공연장 등을 갖춘 별관 건물이 신축됐다.

전주시는 지난 31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원들, 지역 문화예술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립예술단 연습전용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시립국악단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감사패 수여, 축사 등의 기념식이 이어졌으며,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이 개관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연습전용관이 문을 열면서 그간 덕진예술회관 내 공간 부족으로 지난 1997년 증축된 가설건축물과 환기가 잘 되지 않던 지하실 등에서 연습해 온 국악단과 합창단 등 전주시립예술단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게 됐다. 또, 시립예술단원들의 역량 강화로 시민들이 보다 품격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조성된 시립예술단 연습전용관은 총 사업비 56억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연면적 2,544㎡)로 지어졌으며, 연습실과 사무실을 분리해 오직 연습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건축됐다. 특히, 음향전문업체의 설계와 시공으로 공연장과 비슷한 수준의 음향효과를 낼 수 있는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춘 연습장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 문화도시 1위를 차지한 도시답게 문화예술인들을 예우하기 위해 힘써 왔다.

이례로, 시는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품격 있는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식전공연 대신 본 행사 또는 정식공연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묵묵히 연습하며 시민들을 위한 각종 공연을 준비해 온 시립예술단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연습공간에서 전주시민을 위한 희망의 선율과 감동의 화음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